

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

- 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·분양주택 금리 최대 0.3%p 인하
-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「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」(9.7.)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(非)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·다세대·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용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.
-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‘27년 말까지 비(非)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~30bp 인하하고,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.
 - 민간사업자가 비(非)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, 금리는 3.5%로 지원한다.
 -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~1.4억원까지 지원되며,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.4~3.2%,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.0~3.8%이다.

비아파트 사업자대출 요건 완화

주택유형		금리			한도		
		기존	조정	변동	기존	조정	변동
분양	다가구	3.8%	3.5%	△30bp	5천만원	7천만원	+2천만원
	다세대	3.8%	3.5%	△30bp	5천만원	7천만원	+2천만원
임대	다세대	2.6~4.0%	2.4~3.8%	△20bp	5천~12천만원	7천~14천만원	+2천만원
	오피스텔	3.2~4.0%	3.0~3.8%	△20bp	5천~9천만원	7천~11천만원	+2천만원

※ 민간임대의 경우 면적 및 임대유형에 따른 금리·한도 차등 적용

-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(非)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전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 (044-862-2410)를 운영한다.
- 국토교통부 김현정 주택정책관은 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(非)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”이라면서, “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국토교통부 <총괄>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337)
		담당자	서기관	신 연 (044-201-3339)
<공동>	우리은행 주택기금부	책임자	부부장	송재웅 (02-2002-5594)
		전담상담	차 장	이재훈 (직통: 044-862-2410) (상담예약: 1599-0800)